

진도 씻김굿, 어제의 죽음은 오늘의 태어남이다

더씻김
채선후 지음



“...슬픔의 한은 한을 넘어서 즐거움, 밝고 유쾌한 흥으로 변한다. 한과 흥 사이에 필요한 장치라 씻김굿이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씻김굿을 통해 손님처럼 맞이해주고, 슬픔으로 찾아온 이웃들과 함께 놀면서 슬픔을 풀어 간다. 슬픔은 '나'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슬픔을 알리고, 밤새도록 웃고, 울고, 놀면서 새벽을 맞이한다. 어제의 죽음과 슬픔은 오늘의 새로움과 태어남이 된다.”

채선후 작가는 '더씻김'의 '들어가며'에서 "진도는 진도만의 언어가 흐르는 땅"이라며 "진도 사람들은 수 천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죽음을 겪어내며 비손의 언어를 지켜내고 있다"고 말한다. 충북 음성 태생인 작가는 결혼 후 진도에 살게 되면서 '비손이 담긴 소리'를 접했다. 비손은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일'을 뜻한다. 특히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산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 주고자 하는 당골의 소리는 삼금을 울린다. 씻김의 감동은 내 머릿 속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았다"고 말한다.

신간은 크게 4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씻김결'은 씻김굿에 대해 소개하고 '2장 소릿결'은 씻김굿의 절차와 무구(巫具·굿에 사용되는 도구), 굿판 풍경을 보여준다. 진도 씻김굿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리고 작가는 '3장 바람결'에서 채정례(1925~2014) 명인의 씻김굿을 소설로, '4장 마음결'에서는 씻김굿이 품은 마음의 무늬를 시와 수필로 그려낸다.

"씻김굿은 죽은 영혼을 씻겨 좋은 곳에 태어나길 빌어주는 곳이다. 나는 잘 사그라들기 위한 곳이라고 말



진도씻김굿이 품고 있는 위로와 치유의 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하고 싶다. 모든 존재는 생겨나고-머물다-변하고-사그라드는(죽어가는 것, 사라지는 것) 과정을 거친다. 결국 무엇이 되었건 죽는다는(사그라들거나 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씻김굿은 산 사람을 위해서도 슬픈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며 혼자 슬퍼하지 말고 같이 슬픔을 나누자는 의미도 있다. 살면서 맺어온 인연들이 가는 길 마지막에 다 함께 모여 구판을 벌이는 것이다. 굿은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구슬픈게, 때로는 애저로운 소리로 실터래처럼 영친 마음을 소리로 풀어낸다.”

1980년 11월에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은 망자와 산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세습무에 의해 행해지며, 장·장구·피리·아쟁·대금 등 다양한 악기가 사용된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된 채정례 명인의 진도 씻김굿 채록본과 QR 코드로 링크된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을 통해 굿판의 생동감을 맛볼 수 있다.

작가는 '3장 바람결'에서 '낮이로세 낮이로세

줄을 몰랐더니'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을 통해 "좋은 것, 풍요로움만 좇아가는 요즘 그녀의 삶 자체가 한 편의 절박한 교훈을 남긴다"라며 "평생 망자의 혼을 씻겨온' 채정례 당골의 넋을 위로한다.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2014년)와 이태원 참사(2022년) 등 사회적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씻김굿이 품고 있는 '위로와 치유의 힘'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작가는 '나가며'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결 씻김을 강조한다.

"작가로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씻김굿을 단지 알리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하루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속 먼지를 씻어내듯 자신의 마음결을 '씻김'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 책에 담고 싶은 '씻김'은 마음세수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세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트레이크·1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그레이트 서클1·2=세계일주 비행에 도전한 20세기 비행사와, 그 역할을 연기하게 된 21세기 영화배우 두 여성의 삶을 비춘다. 주인공 메리언 그레이트브스와 해들리 백스터의 삶을 교차로 투시하며 소설적 상상력을 펼친다. 두 사람은 공통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삼촌 손에서 자랐으며, 한계를 마주하고 이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을 지녔다. 두 사람은 비행 일지를 매개로 '외로움을 모험으로 바꾸고 싶다'는 공통된 감명을 추구한다. <문학동네·1만8000원>



▲혼자 살기 열두 달=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행복한 독립생활을 돕는다. 초보 독립자라면 여가와 안전, 돈, 건강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삶의 노하우가 축적된 프로 독립자는 부양, 장례, 죽음 등 3, 5, 12월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에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달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준비하고, 이 절차들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청림출판·1만8000원>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1974년 8월 30일, 미쓰비시중공업 전화교환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빌딩 앞 도로에 시한폭탄 두 개를 설치했다는 전화 끝에 들려오는 괴성은, 사망자 8명과 부상자 376명이라는 대규모 참극을 낳았다. 로비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건물 안 직원, 길거리

행인마저 다친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일제의 침략을 공격하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무장투쟁사를 파헤친다. <힐데와소피·2만2000원>

▲과학문화, 난쟁이와 거인의 노래=난쟁이와 거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고대하면서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된 교재. 과학문화부터 과학과 젠더, 기술과 정치 및 생명의 진화 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동식물 번식과 품종개량, 불균형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및 탈정상과학 등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다. 현대 과학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견지하며 사이비네트웍의 실질, 인공지능 등을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자유아카데미·2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123 공룡 유치원=하나부터 열까지 귀여운 열 마리 공룡들과 함께 숫자를 배운다. 아기공룡 샌디는 유치원 갈 준비를 마치고 공룡 빵을 '하나' 먹는다. 새 친구 트라케라톱스 캐리는 샌디와 함께 '둘'이 놀기로 한다. 공룡들의 귀엽고 진솔한 공동체 생활기와 일상을 따라가며 '읽는 말'과 '세는 말'로 나누는 숫자 개념을 알려준다. <모든요일그림책·1만4000원>

▲슬기로운 육아 처방전=아이가 열이 날 때, 귀를 만지며 중이염이 의심될 때 초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설사도 안 했는데 장염에 걸리거나, 특별하게 먹은 것 없이 온몸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간 진료실에서 5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만나며 깨달은 질병 정보 등을 소개한다. <비타북스·2만원>

▲감정을 알아 주는 말=인터넛속 '좋아요', '하트'로 마음을 표현하는 요즘 아이들은 감정을 전하는데 미숙한 경우가 있다. 감정의 척도를 제시하는 '어린이를 위한 무드미터'를 통해 어린이들이 세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알려준다. 화를 나타내는 빨강, 슬픔을 표현하는 파랑을 비롯해 노랑 등 친근한 색채이미지를 통해 감정 표현을 돕는다. <한빛에듀·1만6800원>

건축으로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미래 세대를 위한 건축과 기후 위기 이야기

서윤영 지음



지구 온난화와 건축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로 에너지 건물이 가능할까? 옥상에 정원과 텃밭이 왜 필요할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기후위기와 건축, 그리고 도시에 대해 살펴본 책이 나왔다. 건축과 관련된 사회, 문화, 역사 이야기를 쓰는 건축 칼럼니스트 서윤영의 '미래 세대를 위한 건축과 기후 위기 이야기'다.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한다' 등의 저서를 펴낸 저자는 몇년 전부터 '10대와 통하는 건축과 인권 이야기', '내가 미래 도시의 건축가라면'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축 관련 서적을 집필해왔다. 이번 책은 출판사

철수와 영희가 펴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상상력' 시리즈 중 한 권으로 나왔다.

'건축으로 지구를 지키고 싶어요'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은 도시 소멸, 옥탑방과 반지하, 건축물 재활용, 제로 에너지 건물, 옥상정원, 에코 마을 등 건축·도시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를 살펴보고 건축으로 지구 온난화 방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본다.

책은 건축과 온난화의 상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면 최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재활용은 의미있는 방식이다.

서울 성산동의 문화비축기지는 본래 석유를 비축하던 공간으로 인근 상암동에 축구 경기장을 짓게 되면서 폐쇄됐다. 12년 만에 재활용이 결정되면서 지하에 매설돼 있던 드럼통 모양의 대형 콘크리트 저장고(탱크)를 지상으로 끌어냈고, 5개의 탱크는 전시장,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이야기관, 카페 등으로 변신했다. 건축물 재활용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생활하수와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자동차 공장에서 박물관으로 변신한 이탈리아 토리노 피아트 자동차 박물관, 화력발전소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도 건물 재활용의 좋은 사례다.

외관이 온통 유리로 마감된 '글라스 커튼월(glass curtain wall)' 건물은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불린다. 반면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는 효율적인 설계와 수동적인 방법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주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눈여겨 봐야 할 건축 양식이다. 책에서는 그밖에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옥상정원과 수직 정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15분 도시와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오존층을 되살린 저탄소 에코마을의 성공 사례도 조명한다.

<철수와 영희·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